

제 목	국 문	건강한 70세를 누리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강화 코호트 연구 -		
	영 문	Factors affecting living healthy seventy-year-old life - a Kangwha cohort study -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오희철 ¹⁾ , 강형곤 ¹⁾ , 김석일 ¹⁾ , 이강희 ¹⁾ , 김희옥 ¹⁾ , 손태용 ²⁾ 1)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2) 유한전문대 의무행정과		
	영 문	Heecheol Ohrr ¹⁾ , Hyung Gon Kang ¹⁾ , Suk Il Kim ¹⁾ , Kang Hee Lee ¹⁾ , Hee Ok Kim ¹⁾ , Tae Yong Sohn ²⁾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 Department of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 Yuhan Junior College		
분 야	역 학	발 표 자	오 희 철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 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O) → 완료 예정 시기 : 96 년 12 월			
<p>1. 연구 목적</p> <p>본 연구는 코호트 연구로서 건강하게 70세까지 삶을 누리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명하고자 한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에서는 70세까지 뇌졸중없이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건강한 70세, 7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를 건강한 70세를 누리지 못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1985년 3월 1일까지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은 60세이상 69세이하인 성인 2,861명(남 1,312명, 여자 1,549명)을 대상으로하여 1995년 2월 28일까지 10년간 추적 관찰하였다. 1985년 기초조사에서 결혼상태,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비교 건강상태, 입원력 유무, 흡연 유무, 음주 유무, 농약살포 유무, 각종 음식의 섭취빈도 등을 조사하였고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및 체중, 신장과 맥박수 등을 측정하였다.</p> <p>분석방법으로는 건강한 70세를 누리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변량분석으로 성별로 나누어 카이제곱 검정 및 t-검정을 실시하였고,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Cox의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p>				

3. 연구결과

가. 연구대상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1,312명 중 70세이전에 사망 247명 (18.8%)이고 70세 이전에 중풍 발생은 34명(2.6%)였다. 여자의 경우는 1,549명 중 70세이전에 사망 129명(8.3%)이고 70세 이전에 중풍 발생은 48명(3.1%)이었다.

나. 단일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한 70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985년 당시의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비교 건강상태가 남녀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남자의 경우에는 입원력 유무, 고혈압 유무 및 농약살포경험이 유의하였다.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 농약살포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그리고 입원 경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건강한 70세를 누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남자의 경우 금연자는 25%, 흡연자는 21.6%, 비흡연자는 18.4%가 건강한 70세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음주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하여 건강한 70세를 누릴 확률이 높았다.

다.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Cox의 비례위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건강한 70세를 누리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남자의 경우 농약살포경험 (비교위험도 $RR=1.44$, $p=0.0045$), 고혈압 유무($RR=1.26$, $p=0.068$)와 입원력 유무 ($RR=1.25$, $p=0.082$)이고 여자의 경우 고혈압 유무($RR=1.81$, $p=0.0001$), 같은 연령 비교 건강상태이다.

4. 고찰

종속변수가 7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뇌졸중 발생여부로 이분형으로 측정된 경우이다. 10년간의 추적조사에서 건강한 70세를 누리는데 영향을 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고혈압 유무, 농약살포 경험유무, 입원력 유무, 여자의 경우 고혈압 유무와 연령비교 건강상태 뿐이었다. 흡연의 경우 금연자, 흡연자, 비흡연자 순으로 건강한 70세를 누리지 못할 확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음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주지는 못하였다. 흡연량이나 음주량과 식품섭취빈도 등을 사용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